여름배추 생산량 25% 급감 '금 배추' 대란 다시 반복되나

농경연, 여름배추 생산량 23만 5799t…재배면적·생산량 감소 전망
농식품부, 수급불안 대비 2만 3000t 비축 등 시장 안정 대책 총력

지난해에 이어 올 여름에도 '금(金) 배추'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배추 재배(의향) 면적과 예상되는 생산량이 평년보다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부진 등으로 배추 값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폭등했던 점을 고려해, 배추 비축량 증가를 통한 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1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가 발표한 '농업관측 엽근채소 2025년 6월호'에 따르면 올 여름 배추 생산량은 23만 5799 t 으로 평년(31만 2252 t) 대비 7만 6453 t (24.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역대급 작황 부진으로 꼽히는 지난해(22만 2527 t)보다는 6.0% 높은 수준이지만, '금(金) 배추' 대란 우려가 크다는 게 KREI의 전망이다.

KREI의 배추 생산량 전망치는 재배 면적과 단위 생산량(단수)를 반영해 산출한 추정치로, 올 여름에는 재배면적과 단수가 모두 평년보다 낮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KREI는 연작 피해와 선충 발생 등으로 인한 휴경, 지난해와 같은 폭염 예상에 따른 재배 포기 농가 증가 등으로 재배 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배추를 밭에 심어야 하는 정식기에 배추 시세가 급락한 점도 배추 재배 면적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KREI는 올 여름 배추 재배 면적은 3418ha로 전년(3747ha)과 평년(4491ha)보다 각각 8.8%, 23.9% 감소하고, 단수 역시 평년보다 0.8%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배추 생산량이 평년보다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급 불안에 따른 가격 폭등 우려도 나온다. 기상청이 올 여름 폭염 장기화를 예상한 데다, 재배 면적 감소에 따른 생산량 감소 전망 등이 겹쳐 배추 값 상승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초여름부터 초가을까지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이상기후에 따른 여름 배추 작황 부진으로, 배추 값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폭등하기도 했다. 그 여파로 지난해 포장김치 등 배추 관련 상품을 취급하는 CJ제일제당, 대상 등이 배추 수급 불안으로 일부 제품 판매를 일시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나마 올해는 봄배추 생산량 추정치가 28만 7596 t 으로 전년(26만 7987 t)과 평년(26만 2850 t) 대비 각각 7.3%, 9.4% 증가한 게 위안이 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봄배추 생산량이 지난해와 평년보다 많았던 만큼 지난해 수준의 '금(金) 배추'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배추 수급 불안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일단 배추를 2만 3000 t 비축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봄배추와 여름 배추 수매 비축분, 농협 출하 조절 시설의 저장분 등을 더한 수치다.

또 배추 비축분을 수급 불안기 또는 배추 수요가 급등하는 추석 성수기 등에 시장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기상 재해 및 병해충 등에 따른 배추 생육 피해 발생에 대비한 예비묘도 전년 대비 25% 많은 250만주나 확보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다양한 대책들과 더불어 수급 안정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등 배추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역략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어촌공사, 장마철 농경지 침수·시설물 피해 예방 나선다

장마대비 특별점검 회의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2일 김인중 사장 주재로 '장마대비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

이번 회의는 올여름 이른 장마가 예상됨에 따라 인명 피해 및 농경지 침수, 시설물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논의된 장마철 재해예방 관련 내용을 임직원과 공유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와 지역본부, 사업단 등의 재해 대응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철저한 사전검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 최고의 수해 대응 방법"이라며 "모든 상황에서 인명보호를 최우선 사항으로 두고, 재난상황 비상근무 및 보고체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올여름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전국 3427개 저수지를 비롯한 농업기반시설에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현재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60% 수준으로, 12억 t 가량의 여유 저수용량을 확보하고 있다. 또 오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저수지 저수율 관리 및 집중호우 예보 시 사전 방류 등 추가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aT, 경영분과 자문위원회서 혁신방향 개선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2일 서울시 양재동 aT센터에서 조직·경영 분과 혁신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린 이번 위원회에서는 7대 혁신방향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현재 조직 진단과 현장 중심의 체계 구축 등 전반적인 조직 운영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조직과 인적자원의 체계적인 활용을 통해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디지털 경영 강화 방안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aT는 세 차례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각 분과의 사업 및 경영 전반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올 하반기 중 자문회의를 지속 추진해,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추가 발전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농사만사'

복숭아 닮은 과일 자두

품종별로 출하 시기 달라…교배종 속속 나와 인기

'여름과일'을 들라면 수박과 참외를 떠올리지, 자두를 생각하는 이는 많지 않다. 생산량만 놓고 보면 자두는 주요 작물에 이름을 내밀 수 없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자두 생산량은 5만 257t인데, 이는 전체 과실 생산량(210만 9490 t)의 2.3%를 차지한다. 하지만 자두는 맛과 영양, 오랜 재배역사를 따졌을 때 다른 것과 비교해 무엇 하나 뒤처지지 않는 '핵심과일'이다.

자두라는 이름은 '자주색 열매가 복숭아를 닮았다'라는 뜻의 '자도(紫桃)'에서 유래했다. 그만큼 복숭아나 살구와 많은 점에서 유사한데, 보통 부드러운 과육(果肉) 속에 단단한 핵으로 싸인 씨가 들어 있는 열매인 핵과류에 속한 까닭이다. 앵두, 체리 등도 이에 속하는데 나무의 모양도 비슷하고 핵과류의 결과습성에 따라 2년생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에 나무 종류를 헷갈려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신라 시대부터 재배됐을 만큼 오랜 역사를 자랑하기에 '오얏(李)'을 비롯해 다양하게 불려왔다. 강원과 충북에선 '고야', 함경도에선 '놀', 평안도와 황해도에선 '왜지', 경남에선 '풍개' 등 방언만 30개가 넘는다. 그만큼 우리에겐 친숙한 과일이다.

자두는 세계적으로 30여 종이 있지만 널리 재배되는 것은 두 종류다. 황색이나 진홍색을 띠는 동양계(Prunus salicina)와 자색이나 흑색을 띠는 유럽계(Prunus domestica)가 그것이다. 우리나라에선 과육을 활용하는 푸룬(prune)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럽계와 달리, 주로 생과용인 동양계를 재배한다.

자두는 품종별로 출하 시기가 다르다는 것이 장점이다. 6월에서 9월까지 종류별로 맛을 달리해 익어가는 것이다. 국내에서 재배되는 대표 품종은 조생종 '대석'과 중생종 '포모사(후무사)', 만생종 '추희' 등으로 출하 시기를 달리한다.

6월 하순이 제철인 대석은 짙은 빨간색에 과육이 부드럽고 새콤달콤한 것이 특징이다. 7월 중순에 나오는 포모사는 대석보다 30~50%가량 크다. 속은 옅은 노란색으로 과즙이 풍부하다. 9월 상순에 출하되는 추희는 복숭아 정도의 크기로 단단하면서 당도가 매우 높다. '수박자두'라고 불리는 '솔담'도 있다. 겉은 푸르지만 속은 수박처럼 빨개서 붙여진 이름이다. 솔담과 함께 8월 초에 출하되는 '피자두'는 겉과 속이 모두 빨간색이다.

근래엔 서로의 장점을 살린 교잡종 과일이 인기인데, 자두와 살구 교잡종 '플럼코트(Plumcot)'의 신품종이 속속 육성되면서 소비자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플럼코트는 6월 하순과 7월 초순에 출하된다. 플럼코트 외에도 '플루오트(Pluot)', '애프리움(Aprium)', '체리플럼(CherryPlum)' 등이 혈연관계가 먼 종간의 교잡에 의해 육종된 '하이브리드 과일'이다.

플럼코트는 모계인 자두와 부계인 살구를 교잡해 생긴 종으로 자두의 상큼한 맛과 살구의 달콤한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과일이다. 플럼코트에 다시 자두를 교배시킨 플루오트, 플럼코트에 살구를 교배시켜 달콤함을 더욱 부각한 애프리움 등이 속속 개발됐다. 이들은 자두와 살구의 종간교잡종으로 경상도 지역을 포함해 여러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다.

체리플럼은 자두와 체리의 교잡종으로, 자두보다 크기가 작으면서 체리보다 당도가 높은 과일이다. 체리플럼을 한입 베어 물면 체리와 자두의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오묘한 맛의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자두와 천도복숭아의 교잡종인 '넥타플럼(Nectaplum)', 자두와 매실의 교잡종인 '이매(李梅)' 등 핵과류 종간 교잡종 과일들이 개발 완료돼 시장에 속속 선보이고 있다.

그 시기에 가장 맛있는 과일을 꼽는 '제철과일'이라는 개념이 깨진 지 이미 오래다. 끊임없이 색다른 것, 새로운 맛을 원하는 이기적인 소비자들 때문이다. 하지만 어찌하겠는가, '왕'이신 고객을 위해 맛을 개선하고 생산량을 늘릴 수 밖에….

/bigkim@kwangju.co.kr

오이·시설깻잎·체리·들깨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2027년까지 76→80개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7년까지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품목을 모두 80개로 늘린다고 15일 밝혔다.

보험 적용 품목은 현재 76개에서 내년에 노지 오이와 시설 깻잎이 추가되고 오는 2027년에는 체리와 들깨도 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수요 조사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신규 보험 적용 품목을 선정했다.

농업인은 품목별 파종·정식 시기에 따른 가입 기간에 지역 농업협동조합 등을 방문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